

몸성성교육의 본원성 탐색*

**
오 레 지 나

목차	Abstrac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몸성성의 개념
	III. 몸성교육의 핵심 키워드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이 결과물은 2022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22.08.02.

논문심사일 : 2022.08.09.

게재확정일 : 2022.09.09.

Exploring the originality of “Bodiness”-education

Oh, Regina · Daegu Catholic University

This article illuminates “knowing” which is the essence of education in terms of “doing” which is based on “bodiness.”

Bodiness is about the knowing that is formed in the relations among the various elements of learning based on body. Also, bodiness means the result of the process of the individuals’ unique state of learning. “Bodiness”-education is the kind of education that pursues knowledge through practice of body.

The key words of the bodiness are “Body and the Movement,” “Dynamic Relation,” and “the Process.”

Body, the field of study which has limitless resources, realizes new orders in it through learning and expresses “self.” Movement is the aspect of life that represents practical “doing.” The characteristic quality of movement is the dynamic, and one becomes involved in the process of learning through the dynamic.

Various elements of learning influence each other in education. Through the relations among the factors, knowing forms itself in a student. Such characteristics of learning can be called “Dynamic Relation.”

“Process” is the aspect of study that cannot be considered without body. It signifies listless and dynamic change. Bodiness means the emergence of knowing through process.

Bodiness is the process of forming knowledge by dynamic relations, and such characteristics make uniqueness that distinguishes one from the others. Therefore, pedagogy concentrates its effort o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rage of relations for knowing through doing, rather than simply giv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key words> body, bodiness, movement, bodiness education

<주요어> 몸, 몸성, 움직임, 몸성교육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경험한 인류는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연, 지구, 인간, 휴머니티, 함께하는 삶 등 지속가능성의 질문 한 가운데에서 있게 되었다. 지금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생명을 본질로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지속가능성의 본질을 파괴하는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각 개체의 고유함으로서의 몸은 생명의 시작이며 근거이고 과정이며 그 자체이다. 몸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그 경험을 하였다.

또한, 기술과 비대면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로봇 기술과 메타버스 등 인간과 로봇 및 기술의 경계는 사라지고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 또한 사라지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몸의 생리적,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들은 인간의 삶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에 기초한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는 교육은 자신의 존재와 존재의 실현으로서의 학습에서 청소년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몸은 존재의 토대이며, “몸을 갖지 않고서는 환경과 결합할 수 없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기획이나 일에도 참여할 수 없다. 몸을 통해서 비로소 세계와 구체적인 관계”(조광제, 2007:111)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몸성性은 몸적 존재로서의 고유한 성질”(오레지나, 2021:10)로서 “체화된 존재성”(조광제, 2007:119)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지식은 몸성을 통해 내면화되고 구체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에서는 몸성을 제외시키고 있다.

몸과 몸성은 어떻게 다른가? 특정한 삶의 체험과 지식이 몸에 체화되어 형성되는 개인의 고유함이 몸과 구별되는 몸성이 아닐까? 달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복합적인 기술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몸에 체화되어 있다는 것이 아닐까? 현재 한국의 교육은 몸성에 대한 본질적 탐구나 이에 기초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몸성’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하는 교육, 배운 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교육,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교육 또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우울증을 앓는 청소년들은 증가하고, 자살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강요하는 교육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자연스럽게 ‘창발創發’을 끌어내는 본질을 구현하는 교육,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은 미루어질 수 없는 요구이다. 그리고 이 교육은 ‘몸성’

으로 체현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몸성교육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 몸성성의 개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와 분리될 수 없다. 앎(knowing)과 함(doing)은 다른 현상이 아니다”(Davis B. 외 2인, 2017:21). 학습은 명시적인 지식들을 인지하고 자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들이 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은 다양한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습은 복잡한 관계를 통해 학습자에게 함(doing)이라는 앎(knowing)이 형성되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함(doing)은 몸을 통한 실천성을 동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몸으로 학습이 체화되지 않으면 지식은 앎으로 발전되지 못한다.

몸은 생리학적, 심리학적 현상일뿐 아니라 정신과 의식, 느낌, 감정, 욕구 등이 역동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존재적 토대이다. 인간은 몸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며 몸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나’로서의 고유함을 갖게 된다. 그 고유함은 “체격, 체력과는 구별되며 오히려 인간다움, 자기다움, 자기 발현, 창발과 더 긴밀하게 관계”(오레지나, 2021:10)되어 있다. 이러한 몸성은 몸을 통해 형성되는 실천성이 동반된 체화된 앎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몸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지식을 몸과 생각과 마음과 실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성은 학습의 다양한 요소들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앎에 대한 이해 속에서 조명되는 몸과 몸에 체화된 앎에 대한 개념으로서 몸에 대한 생명성을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앎은 관계적이다. 또한 앎은 단지 관념적인 연합만이 아니다. 앎은 물리적 연결망의 그 물망 안에 존재하는 인식자를 전체로 한다. 인식주체와 지식, 그리고 인식과정은 상호 분리될 수 없다. 그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들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Davis, B. 외 2인, 2017:24).

인식주체에 의한 지식의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연합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앎이 인식주체를 통해 드러내는 앎의 과정적 상태가 바로 몸성인 것이다. 따라서 몸성은 인식주체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나며 지금, 바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의 앎의 과정적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앎이 축적되어 삶의 지혜로 자리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과 중첩되어 오랜 시간 속에 축적된 개인의 고유한 본질적 특성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몸성은 개인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드러내면서 개인의 앎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적 결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성은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개인의 본질로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III / 몸성교육의 핵심 키워드

몸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doing)을 통한 앎(knowing)의 과정적 결과가 개인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몸에서 발현되는 개인의 고유한 성질로서, 오랜 시간을 통해 몸에 축적된 경험과 학습의 과정이며 현재 진행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앎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몸성을 교육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해 ‘몸과 움직임, 역동적 관계성, 과정성’을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고자 한다. 몸성은 몸에서 발현되고 움직임을 통해 가시화되며, “몸은 체화된 경험으로 몸 본연의 지각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관례에 깊숙이 연관”(고현정, 2018:107)되어 있으므로 ‘몸과 움직임’을 첫 번째 키워드로 하였다. 그리고 지식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체화된 지식으로서의 개인의 고유성이 몸으로 발현되므로 ‘역동적 관계성’을 두 번째 키워드로 하였으며, 이러한 개인적, 공동체적,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앎의 과정이 현재의 결과로서 몸으로 구현되므로 ‘과정성’을 세 번째 키워드로 하였다.

1. 몸과 움직임

몸성의 출발점은 생명을 지닌 역동적인 몸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몸은 앎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건강의 차원에서 이해되었고 미美的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몸과 몸의 생명성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몸은 존재의 시작이며 몸 없는 삶은 없기 때문이다. 몸성은 교육의 중심에 학습자로서의 인식자를 자리하게 하고 몸을 통한 존재성을 기반으로 지식의 이해과정을 안내한다. “메를로퐁티가 “몸은 공간 안에 있지 않고.....공간을 산다”라고 말할 때, 이 공간은 객관적인 공간이 아니라 현상적인 공간이다. 우리가 익숙한 행동을 일상적으로 할 때, 과제를 이해하고 대상을 자신의 세계에 통합하는 것은 운동하는 몸이다”(강미라, 2017:193).

몸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며 불완전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전인성의 어른으로 발달하는 것도 아니다. 몸은 발달의 각 단계에서 그 전 단계를 정교화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이미 몸은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통해 자신을 구현하게 된다. 몸은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학습의 장場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인식되는 몸은 어떠한가? 키가 작아서, 다리가 짧아서, 얼굴이 커서, 피부색이 달라서 등 외모지향적인 문화와 장애에 대한 편견, 다문화에 대한 편견 등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몸과 생명에 대한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몸의 가치가 교육적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타인과 비교하는 평가 기준으로 사회 속에 자리하고 있다.

몸성교육은 생명의 가치를 통해 몸의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몸을 살리는 교육이어야 한다. 몸을 살린다는 것은 몸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본원의 모습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움직임이다.

“멍게는 유생 때 헤엄치고 다니다가 바위에 정착을 하게 되면 모든 신경계를 소화해버리고 다시는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 콜롬비아 출신의 신경과학자 Linas, R.는 이 사례를 근거로 동물이 뇌를 진화시킨 것이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폈다.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의 핵심이다. 인간 특유의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위와 내면의 세상 모두를 인간 특유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게 된다”(Williams, C., 2021:7-26). 뇌는 인간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고 움직임은 인간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학습을 하고 그러한 학습의 결과가 축적되어 지식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에 있어서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움직임은 학습을 통한 앎의 근본적 양상 그 자체로 함(doing)을 대표한다. 움직임은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며 그 역동성에 의해 학습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사고의 역동성, 행동의 역동성, 관계의 역동성 그 역동성의 중심에 움직임이 있다. 움직이지 않고는 그 무엇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몸성교육은 움직임의 교육이라

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의 존재를 완성해가는 교육, 함(doing)이라는 앎(knowing)을 통해 창발을 이끌어 내고 과정적 결과로서의 자기다운 상태에 도달하는 교육으로서의 몸성교육은 몸에 체화된 지식과 함(doing)을 대표하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역동적 관계성

교육과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앎(knowing)이다. 그 앎을 위해 많은 지식이 넘쳐나고 있으나 그 지식이 몸과 생각과 마음과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학교 교육의 현실이다. 학습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지식을 전달받아 암기하지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으로 평가되고 자연스럽게 모든 기회에서 제외되면서 학교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학습에서 학습자가 소외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학습은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때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역동적인 관계성이다. “개체의 존재 방식 자체가 온 상태와 연결되어 있고”(최재천, 안희경, 2022:211), 지식은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본질을 드러내게 되며 그 관계를 통해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앎으로 자리하게 된다.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인간을 사고하게 하며, 이렇게 사고하는 상황은 습관적 사고와 행동을 반성”(한혜리, 2020:10)하게 한다. 모든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정체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관계할 때 생명력을 갖게 된다. 하나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역동성을 가질 때 창의적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작은 하나의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과 같다. “생명은 열린시스템이며 복잡계이다. 복잡계의 구성요소들은 수많은 요소들이 관여하는 비선형적 상호작용”(유상균, 2021:280-285)을 하며 이를 통해 형성된 현상으로서의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닌”(최창현, 박찬홍, 200:122) 그 이상 즉, 부분들에 존재하지 않는 특성과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몸성교육에서는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함(doing)이라는 앎(knowing)을 위해 관계의 확장과 이를 위한 교육적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 새로운 질서로서의 창발이 가능한 전략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 중심의 교육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식이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 체화되는 교육이 실행될 때, 지식을 삶에 구현하는 교육, 아는 것을 행하는 실천의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몸성교육은 양적 가치의 사회기준으로 비교하고 구별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제외하지 않고, 정상이라는 보편이라는 일반화된 기준으로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성에 맞추어진 교육이어야 한다. 다양한 몸과 관계에 열려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교육, 역동적 관계성이 춤추는 어울림의 교육이어야 한다.

3. 과정성

앎(knowing)과 함(doing)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적인 의미가 강한 용어이다. 과정은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되는 역동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이 몸이다. 학습에서 몸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바로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앎이 발현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몸성이다. 이러한 몸성이 체화된 지식의 과정적 결과이며 개인이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함인 것이다.

“네트워크의 개별 구성단위인 노드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는데 노드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네트워크는 성장하게 된다”(강경남, 2017:37).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노드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 이것은 모두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이 없으면 네트워크라 할 수 없고 그 네트워크는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이 역동적일 때 네트워크는 활성화된다. 몸성교육도 이와 같다. 앎을 형성하는 개별 구성단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을 이룰 때 지식은 앎으로 체화된다. 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몸이고 움직임이고 그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몸성인 것이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진행적인 의미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역동적인 학습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참여를 온몸으로 체화하는 것이 몸성교육인 것이다.

학습자가 정체되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힘, 문제 상황을 견디는 힘이 약화된 다. 누군가가 무언가 다 그만두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맞이했다면 개인이 속한 사회 속에서 정체되어 있거나, 업무의 과부하로 다양한 관계에 상호작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이 역동적인 과정성을 상실할 때 그 과제를 견디는 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과정성은 살아있음이며 역동성을 의미하고 관계성의 진행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성은 몸 자체가 생태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몸의 생태성을 회복하는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역동적인 과정성은 생태적인 몸의 질서를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및 제언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수준에서는 2015년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에는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삶과 연계한 교육, 깊이 있는 학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넘어야 할 산은 참으로 많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몸성교육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몸성은 학습의 다양한 요소들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앎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몸과 몸에 체화된 앎에 대한 개념으로 개인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드러내면서 개인의 앎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적 결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성은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되는 타인과 구별되는 '대체 불가능한 나'로서의 고유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몸성교육은 생명성, 생태성을 바탕으로 생동에 기반하며, 살아있는 지식과 마음을 몸의 행위로 세계에 드러내도록 돕는다. 몸성교육은 앎(knowing)을 체화하는 함(doing)의 교육으로 몸의 실천을 통해서 앎을 획득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을 보편적 인간관과 이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만드는 과정에 충실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몸성을 교육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몸과 움직임, 역동적 관계성, 과정성'이다.

첫째, 몸은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학습의 장으로서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통해 자신을 구현한다. 그러므로 몸성교육은 몸의 가치를 이해하고 몸의 생태성을 살리는 교육이어야 한다. 움직임은 함(doing)을 대표하는 앎의 양상으로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며 그 역동성에 의해 학습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둘째, 다양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관계 등의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앎은 그 본질을 드러내게 되며 그 관계를 통해 지식은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앎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를 역동적 관계성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학습에서 몸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서의 과정은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되는 역동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앎이 발현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몸성이다.

이처럼 몸성은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체화된 지식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구현된 타인과 구별되는 앎의 고유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에서는 함(doing)이라는 앎(knowing)을 위해 관계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노력과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전략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 중심의 교육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제언

몸성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인간은 몸적 존재로서의 자아, 그리고 확장된 자아로서의 공동체라는 층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공동체는 문화적 고유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몸성이 다르고 공동체의 성격이 다르게 구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고유한 성격은 공동체의 문화를 창조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 ‘액’, ‘정’, ‘은근과 끈기’ 그리고 ‘창의적이고 빠른 문제해결력’, ‘협업적 실천’ 등이 ‘신명’으로 체현된 민족의 문화는 21세기 K-culture로 현대화되어 창발되고 있다. 민족성으로 이해되고 있는 특성들은 민족적 의식이 몸으로 체현되어 발현된 고유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고려의 80여년의 여몽전쟁, 일제 치하 30여년 간의 항일독립운동 등 역사 속에서 두드러지는 저항성. 둘째, 짧은 기간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집중성. 셋째,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빠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빨리빨리’로 알려진 신속성. 넷째, 한과 액을 삶 속에서 담아두지 않고 살을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살풀이의 문화를 가진 신명성. 다섯째, 국채보상운동, 금모으기 등 국가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뛰어난 문제해결력. 여섯째, 2002월드컵 붉은 악마의 응원 및 광화문의 촛불시위 등 광장문화를 이루어낸 협업적 실천성 등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 특성은 한국인의 민족성이며 고유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유성이 ‘한국적인 몸성’이 아닐까? 장구한 역사 속, 어려운 시기마다 협업적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조상들의 지혜는 ‘몸’을 통해 DNA로 전수되며 우리의 ‘몸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공동체를 통해 형성된 민족 고유성에 대한 연구 또한 몸성의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 강미라(2017), **몸 주체 권력, 메트로폰티와 푸코의 몸개념**, 이학사.
- 고현정(2018), “체화된 인지를 통한 무용수 몸지식 담론”,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1)**, 103-117.
- 김경남(2017),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 집문당.
- 오레지나(2019), “움직임을 통한 지식의 체화”,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0(2)**, 77-87.
- _____ (2021), “몸성(性)교육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3)**, 5-16.
- 유상균(2021), **시민의 물리학**, 플루토.
- 조광제(2007),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 최재천, 안희경 (2022), **최재천의 공부,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김영사.
- 최창현, 박찬홍 (2007), **복잡계와 동양사상**, 지샘.
- 한혜리(2020), “지식 확장 무용교육과 상상력 무용 학습의 적합성”,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3)**, 5-19.
- Davis, B. Sumara, D. Luce-Kpler, R.(2008), *ENGAGING MINDS, CHANGING TEACHING IN COMPLEX TIMES*, 한승희, 양은아(역, 2017), **마음과 학습, 교육학의 복잡계적 접근**, 교육과학사.
- Williams, C. (2020), *MOVE!*, 이영래(역, 2021), **움직임의 뇌과학**, 갤리온.